
제1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8년1월28일(단기4291년) 상오10시35분

개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10시 35분 개의)

○간사장 김형익; 지금으로부터 제19회임시회 제1차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민의례가 있었음)

다음은 의장님께서 식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오늘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임시회의를 개회하는데 잠깐 개회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러가지 한파에 시달리고 또한 생활에 쪼들렸든 1개월동안 회의를 소집 못하고있든 차제에 오늘 비로서 19회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이 옳시다.

우리가 다 아는바와같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이라기보다도 우리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벌써 우

리 의회에 나온지가 일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정신이 오로지 서울시의회를 운영해나가는데 바쳤고 또한 160만시민을 위해서 바친 이몸과 정신이 올시다.

여러분은 잘 아시고 우리가 다같이 행동하고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은바 임무를 하기위해서 각자가 생각하고있는 바와같이 우리 일개인이 잘하고 못되는 것은 우리 일개인의 생각이 바로되고 바로되지못한 것은 그 영향이 곧 우리의회에 미치는것이요.

또한 우리 의회에 미치는것이요 또한 우리 의회가 역시 우리 서울160만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인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아침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개개인으로 생각할때에는 극히 미약하고 힘이없는것이 올시다마는 그미약한 일개인이 둘이 모이고 셋이합치고 너이가 합치고 함으로서 비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것이 올시다.

그래서 서양속담에 이런말씀이 있습니다.

삼겹 노끈은 임의로 끊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말인고하니 한가닥의노끈을 세번 네번 합하면 마음대로 근치못한다 힘이있다고하는것입니다. 우리동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일을 해나가는가운데에는 반드시 그영향이 우리시에게 있을줄 믿는바이 올시다.

그런고로 오늘 아침에 동지 여러분과 또한 여기 나오신 집행부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결심하는바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잘 해나가므로서 우리의 하는일이 성과가 올라가므로서 비로서 우리는 우리가 믿은바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것이고 따라서 우리 시민에게 좋

은 영향을 줄수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이자리에서 오늘 19회임시회의를 열게되었으니 이 1차회의부터 시작해서 금번회의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므로서만 우리 믿은바 임무를 완전히 수행된것이라고 알고 여러분들앞에서 몇마디 말씀으로서 개회사를 대신하는바이올시다.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의 말씀이 게시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임시회개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로 말하자면 단기4291년도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기위하여 소집된 회의라고 하는바 아무조록 허심탄회하신 분위기속에서 시민의 교육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빛이 보여주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난 회의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격렬하신 이해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시행정전반에 걸쳐서 많은 진전을 보게되는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사이에는 융합을 도모하면서 모든 시행정이 보다 더욱 성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소기한바 이상의 성과가 있도록 격렬한 업속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람으로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단기4291년1월28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선창으로 일동만세삼창)
이것으로서 개회식을 끝맺겠습니다.
(10시 45분 폐회)